

200자 안내

No라고 말하고 싶을 때 YES라고 말하지 말라

진 배어 외 지음 / 송재우 옮김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위한 사고방식과 태도를 익히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자기주장훈련'. 이 책은 종래의 정신분석 요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임상기법인 '행동요법'의 이론과 기술을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어써 놓고 있어 전문가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 교육상담, 대인관계로 고민하는 일반인들에게도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

경영문화원 / A5신 / 440면 / 3800원

知的 생활의 안내서

윌리엄A. 알코트 지음 / 박달규 옮김

1845년 미국에서 발간된 「YOUNG MAN'S GUIDE」의 번역판. 신세계에 대한 개척정신으로 충만하던 시대에 씌어진 이 책은 당시 미국 젊은이들의 진취적 기상과 의욕적인 자기실현의 방법들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인격형성, 생활습관, 인간교제, 일과 성공, 지적 향상, 인생과 결혼 등을 내용으로 쉽게 기술하고 있어 삶의 방향을 묻는 젊은이들에게 훌륭한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한국산업훈련연구소 / A5신 / 190면 / 3000원

사랑을 아느냐고 내게 물으면

구혜영 지음

1955년 「사상계」를 통해 문단에 데뷔한 후 청소년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작품을 써왔던 저자의 에세이집.

6.25의 소용돌이 속에서 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 사랑과 이별 등 이순의 나이에서 돌이켜보는 지난 삶의 흔적들을 담담하게 회상하고 있다. '눈 먼 당나귀' '유월에는 너를' '축제의 여왕' '신은 모든 열매를 축복하신다' '이른바 사랑이란' 등 5부로 구성되어 있다.

신원문화사 / A5신 / 320면 / 3500원

철학교실

조르주 폴리제 지음 / 서성원 옮김

프랑스의 정치사상가인 저자의 「철학의

기초원리」를 완역한 책.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관념론의 본질을 폭로하고 마르크스주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집필된 것으로 간결한 문체와 쉬운 예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주요부분은 마르크스·엔겔스 및 레닌의 저작들을 직접 인용하고 있어 마르크스주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초보자들에게 도움을 준다.

두레 / A5신 / 232면 / 3400원

해방공동체 5

성서연구회 지음

학문적으로 특화된 이론으로서의 신학을 '신앙의 실천'이라는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삶의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꾸며져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 젊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성서연구자료. 크게 4단원으로 나누어져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주제' '그리스도교 교회의 본질과 구성' '그리스도교 문화'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동원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울 / A5신 / 244면 / 3800원

춤추는 아스팔트

신승진 지음

운전경력 10년 동안 저자가 실제로 보고 겪은 운전기사들의 애환과 갈등 등을 21개의 단편으로 엮은 체험적 사회고발 소설. 인간의 편리한 삶을 위해 태어난 자동차, 그로 인해 생겨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우정, 그리고 슬픔의 이야기를 통해 운전기사들이 겪는 여러 형태의 어려움과 그 피해의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교통정책의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작은책 / A5신 / 212면 / 1300원

소규모사업가가 알아야 할 광고

양갑모 지음

소규모 사업가, 점포 경영자를 위한 광고전략 실전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광고전략, 스크린광고, 기부광고 등 매출신장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구체적인 사례, 참고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전 3편으로 구성, 제1편에서는 광고에 대한 기본지식을 제2편에서는 구매시점 광고를, 제3편에서는 Direct Mail에 대한 노하우 등 그밖의 모든 광고전략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미래투자연구소 / A5신 / 288면 / 4800원

알게논의 무덤 위에 한송이 꽃을

다니엘 키이즈 지음 / 정연주 옮김

'정신박약자인 환인간에게 뇌수술을 실시하여 정상인 혹은 천재로 만들 수 있는가'라는 가설로 비롯되는 이 소설은 정신박약자인 주인공이 실험대 위에서 쓰는 뇌수술 진행보고서이

다. 인지능력의 변화에 따라 주인공이 겪는 방향과 갈등을 통해 첨단과학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인간애의 중요성을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가장뛰어난 과학소설에 주는 휴고상 수상작품.

일월서각 / A5신 / 320면 / 4000원

그여름 날개내리다

민병삼 지음

1970년 '현대문학'지로 등단, 동서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작가의 첫 장편소설. '작가의 상상력을 항상 앞질러 가는 기이한 현실에서 작가는 과연 무엇을 쓸 수 있는가'라는 스스로의 물음에 대한 답으로 내놓았다고 후기에서 밝히고 있는 이 소설은 각기 다른 환경과 경험을 지닌 젊은이들의 애정과 욕망, 갈등을 통해 우리시대의 아픈 사랑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서연 / A5신 / 314면 / 3800원

역사의 뒷

최광렬 지음

중견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평론활동도 아우르고 있는 작가의 장편소설. 동양문학에 연재 중인 작품으로 제1부를 묶어 펴냈다. 해방직후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인공이 겪는 아픔과 갈등을 통해 분단의 고통과 그 원인을 다각도로 추적하고 있다. 기존의 소설서술 방식을 탈피, 허구적 구성과 전기적 수법, 학술적 자료를 삽입하는 등 종합적인 표현기법을 사용하여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조명하고 있다.

동인기획 / A5신 / 312면 / 3800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지음 / 채규철 외 옮김

미국 흑인인권운동의 지도자이며 사랑과 비폭력으로 위대한 민주주의를 실천한 킹 목사의 명연설들을 엮은 책.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의 전생애를 사랑과 비폭력 투쟁으로 불사른 킹 목사의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라고 외치는 저자의 굽힐 줄 모르는 신념과 의지는 혼돈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찬사 / A5신 / 326면 / 4000원

불교경전산책

나카무라 하지메 지음 / 박희준 옮김

방대한 분량의 불교경전 가운데서 어떤 것을 읽어야 하며 교리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책. 원시불교의 경전을 비롯하여 대승경전, 밀교경전 중에서 중요한 경전은 빠짐없이 다루고 있는 불교경전의 중요약본이라 할 수 있다. 경전의 현대어 번역

과 함께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과 사상에 대한 해설을 덧붙여 불교 중요 경전을 산책하듯 접할 수 있게 했다.

민족사 / A5신 / 230면 / 4000원

자본주의와 인간발달

피터 레오나드 지음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옮김

'인간의 인성에 대한 유물론적 접근'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자본주의 사회관계 내에서 개인 인성이 어떻게 왜곡되어가는가를 밝히고 있다. 특히 인간행동에 대한 기존의 사회학적, 심리학적 분석을 재평가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즉 인성의 왜곡은 개인이 자신을 대자적으로 인식하고 실천적 활동을 수행해나갈 때 극복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울아카데미 / A5신 / 228면 / 3800원

내 작은 가슴속에 끝없는 사랑이

레오 버스카글리아 지음 / 권혁철 옮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교육학 교수인 저자가 사랑으로 인해 방황하고 고민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특정한 '사랑의 교실' 강의록을 통해 젊은이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와 체험을 바탕으로 쓴 책. '사랑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다'라고 말하는 저자의 참된 사랑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전 13장에 걸쳐 소박한 문체로 전개되고 있다.

국립문학사 / A5신 / 288면 / 3800원

詩가 있는 地上에서

강우식 외 지음

강우식, 강은교, 김후란, 박재삼, 신경림, 이근배, 이성부, 정현종, 허영자, 황동규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견시인 10인의 앤솔로지. 우리의 마음속을 연연히 흐르는恨이나 情을 기조로 사랑과 죽음, 고독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픔을 그리고 있는 대표적인 시와, 시작메모. 시론 또는 인생론이기도한 산문을 수록하고 있다. 사진과 목화를 곁들여 감동을 더하고 있다.

우석 / A5신 / 200면 / 3000원

세계관의 갈등

토마스 사우웰 지음 / 이구재 옮김

인식의 주체로서의 인간이 자기 자신과 사회 및 역사에 대해 갖는 특정한 입장이 곧 세계관이다. 이 책은 이러한 세계관의 의미와 내용 및 차이를 분석함에 있어 '인간의 능력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인성관을 기초로 하고 있다. '유형'과 '응용'의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세계관의 역할과 다양한 세계관의 유형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세계관에서 파생되는 평등관, 권력관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인간사랑 / A5신 / 250면 / 4000원

구원 이후 어린이 양육은 이렇게 하라

머조리 소더홀름 지음

구원받은 어린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용 지침서.

어린이 양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방안과 그 이유를 다양한 예화와 삽화를 곁들여 소개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양육을 교회성장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으며 교회와 가정과 사회(학교)를 연결시켜 교회교육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파이드론 / A5신 / 116면 / 1600원

사랑과 삶 속에서의 나

레오 버스카글리아 지음 / 장영하 옮김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로 잘 알려진 저자의 사랑을 주제로 한 에세이집.

‘진심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면 인생은 낙원입니다’라는 말로 압축될 수 있는 저자의 사랑과 인생에 대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날마다 새로운 자기를 살고 있습니까’ ‘당신을 에워싼 모든 것에서 배우고 있습니까’ ‘자기만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가’ ‘인생을 전부 즐기고 있습니까’ 등의 4부로 구성.

오죽헌 / A5신 / 224면 / 3500원

당신 안에 나 지극히 행복합니다

편집부 엮음

헤세, 세익스피어, 키츠 등 세계 유명 시인들이 쓴 믿음과 찬양의 시들과 시편, 아가서 등 성서에 수록되어 있는 시들을 모아서 엮은 책. ‘한 작은 기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모든 것 속에서도 당신은’ ‘기쁨의 종 울리자’ ‘언제까지나 당신과 함께 하렵니다’ 등의 5부로 구성. 신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의 기쁨과 찬양의 노래를 읽을 수 있다.

이가 / A5신 / 194면 / 2800원

죽음이란 무엇인가

김승혜 외 지음

‘죽음의 문제’를 주제로 한 한국종교학회의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모아 단행본으로 엮은 책. 가톨릭,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교 등 현존하는 세계의 종교전통과 무속, 증산교 등 국내의 대표적 민간신앙들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죽음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맺음말로 한국의 전통적죽음관의 본질에 대한 황필호 교수의 글이 실려있다.

창 / A5신 / 300면 / 4800원

심지뽀기

최기인 지음

「뽀뽀각각」 「처숙」 등으로 잘 알려진 작가의 콩트와 연작소설을 모아 엮은 짧은소설

모음집. 1.2부는 콩트 모음으로 우직한 주인공의 생활을 통해 약삭빠른 현대인의 모습을 예리하게 꼬집고 있다. 3부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고향마을의 정취를 두메산골인 당복촌의 이야기를 통해 흥미진진하게 엮어가고 있다.

영학 / A5신 / 288면 / 3500원

무너지는 萬里長城

林昌盛 외 옮김 / 편집실 펴냄

중국 文汇报 출판사의 「在道德法庭上白被告」를 원본으로 하여 펴낸 연변인민출판사의 조선어판을 재편집한 책.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유입이 사회주의 도덕을 어떻게 타락시키는가를 사례를 들어 밝히고 있다. 사회주의 도덕의 ‘순결성’을 지키 내기 위해 국민의 교양을 목적으로 편찬된 이 책의 사례들은 중국인들의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경영문화원 / A5신 / 390면 / 3500원

믿음의 나눔자리 (통권 39호)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엮음

[나눔자리 단상] 민주주의 타협 [성서를 얼마나 아십니까] ▲성서란 ▲성서는 어떤 언어로 쓰여졌는가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칠십삼국에 사육이칠 [나의 이야기] 무지의 충격에서 벗어나고자 (이영원. 꽃밭따)

[전국의 성서모임]

[내 삶을 지켜주는 말씀]

이사야 12장 2절(박민호. 이사야 수사)

[성서읽기](유은숙. 제노베포)

[그때 그곳의 사람들] 돌에 새긴 믿음(송마리아)

[영화평] 우리가 살려야 한다(이희철. F. 사베리오)

[동화] 목마 할아버지(박민호. 이사야 수사 / 박정원. 울리야나)

[예수 그리스도] 네째마당(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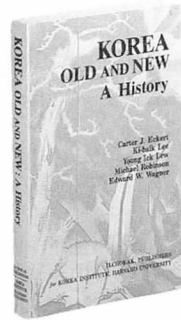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변형 / 300면 / 비매품



화제의 책

KOREA OLD AND NEW A History

Carter J. Eckert 외 지음



고대로부터 최근 1990년까지의 한국역사를 기술한 영어판 개설서가 출간됐다. 2명의 미국인 학자를 포함하여 한국의 이기백교수(한림대)와 유영익교수(한림대)가 함께 저술한

이 책은 그간의 영어본에 비해 그 범위의 광대함으로 영어권 독자들의 한국역사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20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선사 이전 시기부터 삼국시대와 고려의 왕족정치, 조선 양반관료사회 등 10여장을 이기백교수가 집필했고, 1864~1910년까지의 시기는 유영익교수의 책임집필로 대원군의 쇄국정책과 개화사상, 동학농민봉기, 일본의 침략과 조선 합병을 다뤘다.

1910~1990년의 나머지는 한국현대사에 정통한 두 미국 역사학자에 의해 서술됐는데, 해방 직후의 미·소 대립과 한반도의 분할, 한국전쟁을 거쳐 이승만의 1공화국에서 현재 6공화국까지의 현대사에 대한 카터 J. 에커트교수(하버드대)의 명쾌한 서술도 돋보인다.

일조각 / A5신 / 454면 / 10,000원

이색출판

全羅監司

崔勝範 지음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을 관장했던 전라감사의 행적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걸쳐 추적한 인명록이다. 전북대학교 崔勝範교수가 현전하는 「道先

生案」을 토대로 하고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우선 제1권이 정리돼 나왔다.

고려 공민왕 7년(1358)의 전라도 안렴사 權思復편에서부터 1910년의 관찰사 李斗璜편까지 552년 동안 약 520여명의 전라감사의 행적을 기록한 이 책은 감사 개인의 인품과 공적을 비롯, 재임시에 있었던 사건들을 당시 시대상황과 연결하여 서술하고 있다.

고려시대 때 안렴사·안집사, 都觀察 黜陟使로 불렸던 監司는 조선시대에 다시 안렴사·도관찰출척사, 도관찰사로, 그 후 道伯·方伯·道先生 등의 별칭으로 불리는 등 명칭의 변천과 아울러, 그 직무와 기능권한 등 고려·조선시대 행정제도의 변화흐름을 통해 전라지역 地方史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全羅日報社 / B5 / 472면 / 45,000원

화제의 책

韓國教育思想家評傳 I·II

孫仁銖 지음



수많은 교육학 연구저서를 펴낸 바 있는 저자가 한국의 교육사상가 110인의 생애와 사상을 시대별로 정리한 평전으로 총 5장을 2권에 나눠 묶었다.

제1권은 정신적으로 유교윤리를 받들면서 불교를 수용, 교육뿐만 아니라 사상·문화·정치·종교·생활방식 등에 영향을 끼쳤던 삼국시대의 교육사상가로 원광·崔致遠 등 5인을 꼽았으며, 불교를 종교로 숭상하고 유교를 현실적 교육정책으로 제도화한 고려시대는 安珮·權近·吉再 등 10인, 그리고 성리학을 배경으로 한 조선시대는 金宗直을 비롯한 33인 등 총 48인의 사상을 다뤘다.

제2권은 급속한 서구문물의 유입으로 척사 의식과 개화사상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新·舊 교착기의 金大建·崔濟愚 등 20인과 이른바 신교육의 도입으로 근대교육의 체제가 확립되는 근대 이후 시기의 李商在·金九·方定煥 등 41인의 교육관과 민족의식을 재조명하고 있다.

文音社 / A5신 / 538, 682면 / 12,000원